제344회국회
(임시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7월27일(수)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 강원도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상정된 안건

1. 업무보고 ····· 1
   - 문화체육관광부
   - 강원도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영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및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특위 회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1. 업무보고
   - **문화체육관광부**
   - **강원도**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10시05분)

○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 대상을 순서대로 일괄하여 들은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대 국회 개원 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이제 1년가량 남은 시점에서 정부는 강원도 조직위원회와 함께 차질 없는 대회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문체부가 종합적인 대회 준비 상황을, 강원도가 대회 시설 준비 상황, 조직위원회

가 대회 운영과 관련된 준비 상황을 각각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대회 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대회 시설은 크게 경기장, 개·폐회식장 등 대회 부대시설, 대회 교통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설 경기장 6개소는 평균 공정률이 약 80%로 연내 9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7월 24일 강릉 아이스아레나 경기장에서 발생한 작업 인부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강원도 조직위와 함께 사고 수습을 포함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전체 경기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사고로 인해 경기장 시설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경기장 6개소는 시설 개·보수, 코스 신설 등을 통해 올림픽 기준에 맞는 시설로 조성 중이며, 국가대표선수 훈련시설 조기 활용을 위해 건설공정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입니다. 현재 12개 경기장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설 경기장 7114억 원과 기존 경기장 1349억 원으로 총 8463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대회 관련 부대시설과 대회 교통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개·폐회식장은 평창군 횡계리에 3만 5000석 규모로 건설 중이며 17년 9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필수시설과 문화지원시설을 포함하여 1226억 원입니다.

올림픽 방송의 중심 시설인 국제방송센터는 알펜시아리조트 내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17년 4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올림픽의 원활한 관람을 위해 광역교통망은 차질 없이 건설이 진행 중이며,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이동 시간이 종전 5시간 47분에서 1시간 12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차별 없는 올림픽 구현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차량 200대, 저상버스 140여 대를 확보, 또 올림픽 베뉴(venue)에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화장실, 관람석, 주차구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문화·관광올림픽을 실현하고 올림픽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개·폐회식은 현재 세부 연출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보여 줄 것입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성화 봉송 계획을 수립하고 마스코트 홍보, 계기별 문화행사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올림픽 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ICT에 기반한 문화·관광 안내, 스포츠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패럴림픽 인식 제고를 위해 모든 홍보 활동에서 올림픽과 동일하게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동계종목 경기력 향상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종목 출전,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이 출전하여 올림픽 종합 4위, 패럴림픽 종합 10위 목표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국가대표와 지도자, 관련 전문 지원 인력을 확대하여 우리나라가 동계 종목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특수훈련시설을 지원하고 국외 전지훈련, 국제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 경기장은 강원도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사후 활용 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에서는 빙상도시 조성, 국내외 대회 개최 등을 통해 올림픽 유산이 지속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기관 등과 협업하여 사후 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평창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김종덕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 여러분!

오늘 평창동계올림픽과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경기장 건설을 비롯해서 올림픽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강원도의 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경기장 건설 현황 보고드립니다.

필요한 경기장은 모두 12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새로 짓는 경기장은 6개가 되겠습니다. 6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8463억 원입니다. 현재 평균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4개의 경기장을 완공하고 8개 경기장은 내년 12월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장 건설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는 모두 16개 노선입니다. 진입도로 건설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5399억 원입니다. 그중에 7개 노선은 올해 12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9개 노선은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후 활용 대상 시설은 모두 13개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12개와 개·폐회식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후 활용 관리 주체가 결정된 곳은 11개가 되겠습니다. 미결정된 2개소는 최적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정부·조직위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쪽 건의 사항 2건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경기장 사후 관리에 대한 국가 지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사후 활용 대상 경기장은 12개소입니다. 이 중에 슬라이딩센터를 비롯한 전용 훈련시설로 활용이 불가피한 경기장은 국가 차원에서 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건의해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문화올림픽 추진 국비 지원입니다.

IOC는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풍성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으로 국비 300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도의 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해 최고 수준의 올림픽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희범 조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계특위 위원님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 이희범입니다.

각종 의정 현안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제20대 국회 첫 동계특위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창올림픽 준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로서 올림픽 개최까지 정확히 562일 남았습니다. 조직위원회는 2018평창올림픽이 세계 올림픽사에 길이 남는 성공 올림픽이 되도록 모든 임직원이 하나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직위원회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경제·문화·환경·평화·ICT올림픽 실현, 역사에 남는 성공한 올림픽 준비, 당면 현안 순입니다.

먼저 대회 및 조직위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대회 일반현황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패럴림픽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됩니다. 뉴 호라이즌스(New Horizons)를 비전으로 경제·문화·환경·평화·ICT올림픽 등 5대 올림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 및 3쪽 조직위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대 올림픽 실현을 위한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건전한 대회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올림픽 구현입니다.

먼저 대회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균형 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제4차 대회 재정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2010년 말에 마련된 비드 파일(bid file) 당시에 비해서는 신규 수요의 발생과 사업 규모의 변경,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조직위로 변경 등으로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조직위원회는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 소요 최소화 노력 및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국내 스폰서십 판매 목표인 9400억 원의 90%까지 달성하고 중견·중소기업 등 잠재 후원사 발굴 등을 통해서 목표액을 넘어 총 1조 원 수준의 스폰서십 수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라이선싱 상품 제조·판매, 기념제품과 입장권 판매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대회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6쪽 전 세계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고품격 문화올림픽 추진입니다.

앞서 문체부장관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통문화와 첨단 ICT를 접목해서 세계인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폐회식을 연출하겠습니다.

둘째, 101일간의 성화 봉송을 통하여 전 국민과 세계인에게 하나 된 열정의 대한민국을 보여주겠습니다.

셋째, 대회 전에는 주요 계기별로 국민 참여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대회 기간 중에는 날마다 축제를 개최해서 올림픽이 한류와 지역문화의 정수를 보여 줄 수 있는 문화 페스티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 문화·스포츠 메카로 평창브랜드를 정립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활동의 유산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지속 가능한 환경올림픽 및 평화올림픽 실현입니다.

먼저 환경올림픽 실현을 위해서 저탄소·그린·지속 가능 올림픽 등 3대 전략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159만t을 감축하거나 상쇄하고 개최 지역 생태환경 복원과 산림경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관 기업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안전종합계획 수립, 테러 및 통합 모의훈련 실시 등 대회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세계 최첨단 ICT올림픽 추진입니다.

첫째, 세계 최초로 5G 시범망을 구축해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입국부터 경기관람·쇼핑, 출국까지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인간형 로봇이 길을 안내하고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휴머노이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넷째, 영어·일어·중국어·불어 등 8개 국어 자동 통·번역시스템을 구축해서 세계 최초로 언어장벽 없는 올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사에 남는 성공한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선수·경기·이용자 중심의 고품질 서비스 준비입니다.

고객 맞춤형 수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고, 폭설 등에 대비한 특별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수송·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선수와 기자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숙박시설 배정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숙박시설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서 서비스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철저히 준비하고 개최 도시 식당 서비스 선진화 등을 통해서 글로벌 수준의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안정적 대회 운영을 위해서 경기운영인력 모집,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모집·양성하는 한편 자원봉사 유산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자

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향후 국제대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습니다.

12쪽 국내외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올림픽 붐 조성입니다.

수호랑과 반다비 등 마스코트를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 시도와 협력해서 홍보 체험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요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올림픽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리우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브라질 현지에서 평창홍보관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올림픽 페스티벌 개최, 올림픽 홍보대사 교차위촉 등 차기 올림픽 개최지인 중국·일본과의 연계 홍보를 통해서 올림픽 붐 조성과 아시아 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13쪽 대한민국 스포츠 국제화와 위상 제고입니다.

먼저 IOC와는 조정위원회, 프로젝트 리뷰 등 각종 준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리우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주요 스포츠계 인사와의 면담을 집중으로 추진해서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8 평창, 2020 도쿄, 2022 베이징 등 동북아 3개국에서 잇따라 올림픽이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한중일 올림픽조직위원회와 IOC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중일 3국 간 스포츠 교류 확대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올림픽플라자 등 대회 관련 시설 적기 건설입니다.

앞서 문체부장관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림픽플라자, 국제방송센터, 선수촌, 미디어촌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앞서 문체부장관께서 또 강원지사께서 보고드린 바 같이 지난 7월 24일 강릉 아이스아레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교육, 관리·감독 강화, 사전 예방활동과 점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5쪽 패럴림픽 성공 개최 준비입니다.

‘Same Worker, Two Games’ 원칙 아래,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동시에 균형감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경기장 등 시설은 별도 시설 건립 없이 올림픽과 동일한 시설을 사용하되 관람석, 경사로 등 접근성 요건을 반영하여 건설하겠습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준비 중에 있으며 숙박 분야에서는 장애인 접근 가능한 객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조직위와 정부, 개최 도시가 함께 개최 도시 내 음식점·숙박시설 등의 민간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패럴림픽의 특성 및 선수, 관중 등 장애인을 배려한 개·폐회식과 성화 봉송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과 동일하게 패럴림픽 홍보를 추진하고 패럴림픽 인식 제고 교육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현황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면 현황입니다.

19쪽 균형재정 확보입니다.

조직위 운영비는 2010년 올림픽 유치 신청 시에 2018년 기준 2조 2000억으로 IOC에 제출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이 변경됨으로써 운영비가 당초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조직위에서는 지출 낭비요인 제거와 중복 투자 방지 등 자구 노력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강릉·평창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IOC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달 재원 2조 400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에 직간접으로 연관되거나 재무 여건이 양호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림픽 후원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가적 성격의 사업이나 각 부처 보유 물자·장비의 공통 활용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공통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조직위 수행 사업 중에서 국가적 성격이 강하거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조직위가 균형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원 독려 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1쪽 금년 11월부터 실시될 테스트이벤트입니다.

동계올림픽의 마지막 준비 단계로서 모든 개최 종목을 사전에 종합 점검하겠습니다. 금년 11월부터 개최되는 총 28개 대회를 국내 연맹, 개최도시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성공적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테스트이벤트 대회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2020동경올림픽과 2022북경동계올림픽 등 2년 단위로 동북아 3개 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이제 리우올림픽이 끝나면 세계인의 이목은 평창으로 집중될 것입니다. 세계사에 빛나는 성공 올림픽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대회 준비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이희범 조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요. 질의시간은 5분, 주질의 5분으로 하면 되겠지요, 여야 간사님들? 그럼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나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새누리당의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강원도 강릉 출신의 권성동 위원입니다.

우리 장관님, 도지사님, 조직위원장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이 동계올림픽 유치하러 남아공에 가서 우리 지사님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는데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얼마 전에 감사원의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최소한 2244억 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6000억 원이 있어야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재원 마련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최소한 2244억 원은 필요하고 문화관광 올림픽 등을 성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신지 복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감사원 감사 결과는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차 재정계획, 그러니까 2010년 때 비드 파일에 기반해 갖고 만들어졌던 3차 재정계획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것만큼을 이번에 조직위가 4차 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좀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조직위가 불필요하게 써야지 되는 어떤 지출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자제하고 스폰서십을 좀 늘리고, 그러고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하고 다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물론 낭비요인은 제거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부족한 돈마저 이것이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올림픽 성공하는 데 가장 핵심 역할 하시는 분이 장관님입니다,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를 좀 더 설득하는 데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장관님, 오늘도 강원도도 그렇고 문체부도 그렇고 또 조직위도 그렇고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에 대해서 쭉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올림픽 끝나고 우리가 국민체육진흥공단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계올림픽 끝나고 30년 만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이 동계경기장도 결국은 공단에서 맡아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성과 영속성을 좀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론 유치할 때 지자체에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부분은 있고, 화장

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 와서는 국가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형평성도, 하계와 동계와의 형평성도 맞춰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강원도나 강릉시·평창군의 재정 상황을 보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일괄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사실은 이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군데의 지금 신설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미 사후활용 계획이 어느 정도는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그걸 재활용하는 걸로, 경기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계획이 나와 있어서 우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주체 자체가 강원도고 강원도에서 책임하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거고, 저희는 최대한, 정부 입장에서 그걸 도와 드릴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88올림픽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것이 88올림픽 때는 사실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3000억 이상의 돈이 남아 가지고 그거 갖고 체육진흥관리공단이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 갖고 관리한 거거든요.

○권성동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좀 없어서……

하여튼 다시 한번 혹시 지자체의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지사님께, 강원도동계올림픽조직본부가 있는데 평균 근무연한이 1년 조금 남짓해요. 업무의 연속성, 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키우기 위해서 최소한 1년 6개월 내지 2년은 근무할 수 있도록, 이제 간 사람들은 올림픽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계속 동계올림픽조직본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사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다음에 특구가 마련됐는데 특구에 민간사업자들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도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권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기선 위원 원주 출신의 김기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권성동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동계올림픽이 500여 일 좀 넘게 남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테스트이벤트가 11월 달부터 개최가 됩니다. 이제 3개월 남았다는 그러한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이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그런 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도 나왔지만 감사원이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한 열흘 전에 한 2000억 원이 재원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우리 조직위원장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김기선 위원 조직위원회에서 볼 때 IOC에 제시했던 것이 약 2조 2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한 2조 8000억까지 필요 예산이 지금 늘어난 상태에서 2000억뿐만이 아니라 약 6000억 가까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을 예산으로 전부 뒷받침할 수는 없지만 이외의 이런 세계적인 축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국제적인 스폰서십, 국내의 스폰서십 이거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조직위원장님, 스폰서십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내의 자구 노력과 스폰서십 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9400억을 당초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79%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어렵지만 연말까지는 90% 이상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국제적인 경기력을 가지고 서로 겨루는 그러한 것을 넘어 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세계적인 그

러한 다국적기업의 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로도 활용이 되고 또 국내의 여러 가지 경제력 상황을 진작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보다 2년 후에 개최되는 동경올림픽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쪽에서 목표로 잡은 스폰서 수입이 초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미 동경 같은 경우에는 목표액이 약 13억 불인데 벌써 약 3조 5000억 정도를 유치했다 이러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스폰서십을 확보하는 데 조직위에서 볼 때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지금 민간기관에, 지금 9400억 중에 한 7500억 정도 달성했습니다만 거의가 민간기업입니다. 사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왜 공기업은 놔두고 민간기업만 자꾸 하느냐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제 저희가 한전하고도 MOU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공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하고 그 부분의 노력을 좀 강화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함께하는 그러한 올림픽의 모습을 조성을 할 필요가 있지만은, 특히 공공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마는 특히 올림픽과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또 여러 가지 수혜를 함께 보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도 있고 기타 한전이라거나 또 물류와 관련해 철도와 관련돼 있는 이런 공공기관들은 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 함께 수혜도 보고 있고 이것이 성공이 되면 이런 공공기관의 여러 가지 이미지도 개선되고 또 그에 따른 이익도 많이 발생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조직위원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원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유인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도 제시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장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공기업이 나서기에 걸림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걸림돌을 없애는 경영평가지표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총리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 아마 그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장관님께서 공공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 특히 이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장관님께서 적극 나서서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좀 좌석을 바꿔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순서인데요, 박완주 위원님 먼저 질의 좀 하시게 이렇게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완주 위원님은 지난번 회의 안 나오셔서 인사 못 하셨지요? 그래서 시간 드릴 테니까 간단히 인사말씀하시고 그리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주 위원 순서 바꿔 주신 우리 이은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권성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 그다음에 17년 예산 관련돼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그다음에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 조직위원장님, 이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도 중요한데, 2016년도 그리고 17년도 각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장관님, 현재 확정한 예산 갖고 충분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각 우리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 3차 재정계획

상의 그것만 갖고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재정계획을 새로 세운 거고, 그 차액이 실제 아마 조직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갖고 티켓을 더 많이 팔고 그러더라도 할 수 있는 거에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십도 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게 금액으로 대략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좀……

○박완주 위원 왜냐하면 계획을 잡으면 기재부하고 등등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모자라는 거를 보태 주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 저희로는……

○박완주 위원 그런 계획은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2조, 전체, 처음에 비드파일에 들어가 있던 건 2조 2000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000억 정도는 더……

○박완주 위원 추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조직위에서 더 할 수 있다는 거고, 4차 재정계획의 운영비는 2조 80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00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줄일 걸 줄이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 같은데 어쨌든 기재부하고 좀 협의는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완주 위원 예.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경기장하고 도로를 짓는 데 집중을 해 왔는데 그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홍보·문화·예술·공연,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아직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가로 정비가 매우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도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저희들은 내년 예산으로 한 500억 정도가 최소한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예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아니고 이젠 국고로 한 500억이 더……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박완주 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 도가 투자하는 부분은 좀 따로 있겠습니다.

○박완주 위원 따로, 예.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리고 또 조직위원회는 또 조직위원장께서 따로 말씀이 있으실 걸로 생각……

○박완주 위원 예, 우리 조직위원장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사실 성공 올림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 규모는 조금 변할 수는 있습니다. 소치 같은 경우는 전부 510억 불, 약 55조 이상을 투입했다고 돼 있는데요. 저희는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수준의 규모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부족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정변경이 생겼던 거, 국고가 조직위로 이관된 거, 새로운 경기가 추가된 거 등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차 재정계획안을 마련해서 지금 정부에, 문체부에 제출해 놓고 있고 문체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장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4000억 이상 모자라는 거는 저희가 자구 노력을 합니다. 자구 노력해서 안 되는 거는 일부는 정부가 좀 도와주십사라는 부탁……

○박완주 위원 그 금액 규모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재정 당국에서도 계획을 세우지 않겠어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사실 국고로 지금 요청한 거는요, 각 부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청에 보안장비를 넣는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4차 재정계획으로는 한 300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밖에는 비재정 사업입니다. 예컨대 올림픽복권이라든가 공공기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 한 2000억씩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은 한 4000억 정도 규모 그다음에 강원도에서는 한 500억 정도이고 조직위에서 필요하다는 건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2500억 정도가, 중복돼 안에 있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중복돼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걸 포함해서 4000억 정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다 포함해서 한 4000 정

도인데 다 재정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재정도 일부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박완주 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요.

장관님, 그래서 내년 차질 없이 우리가 어쨌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재정 당국에선 어떤 입장이에요, 제출한 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직까지는 조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선은 조직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IOC에서 받아야 되는 돈도 또 있거든요. IOC에서 받아야지 되는 돈, 그 외에 지출 절감도 좀 해야지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진흥복권사업에서 더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국고에서는 최소화로 하고, 물론 진흥복권도 역시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돈이 나가는 걸 하여튼 최소화하는 걸 먼저 좀 선행해 달라, 그걸 통해 갖고 국고는 좀 최소한으로 지원되게끔 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완주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론 예산은, 세금은 아껴 써야 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기관이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야, 이게 대한민국 국격이 달려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장 황영철 박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위원 강남병의 이은재입니다.

우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각국 스포츠 선수들의 한국특별귀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스키에 2명, 아이스하키에 7명, 바이애슬론 2명, 그다음에 최근에는 루지 종목에서 독일 출신의 에일린 프리쉐 선수가 아마 귀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귀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자기네 나라, 자국의 국가대표에서 탈락한 선수가 이렇게 특별귀화를 통해서 대회 출전 자격을 얻고 개인의 메달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연 이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선수로서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뛸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그쪽의 전문가로서 우리나라의 그쪽 분야의 어떤 체육기술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체육계에서의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체육단체에 정말 필요한지 이게, 필요성 문제하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정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셨던 해외의 어떤 선진기술 전수와 또 동시에 동계 종목에서의 한국스포츠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정도의 어떤 도움이 되는 그 범위 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인의 정서를 공유를 하고 장기적으로 해당 종목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선발제도의 개선 이것이 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시행하시겠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 가지고 대한체육회하고 경기단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계올림픽과 아울러서 우리 IT 기술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게 어떠냐, 이것 말씀 아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까 조직위원장

께서 보고드린 대로 IT 기술을 활용한 랭귀지 프리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 통역시스템 앱이라든지 또 경기장을 직접 실제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VR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예를 들면 IT 기술에 대한 홍보의 장이, 지금 우리나라가 IT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계올림픽에 많은 나라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홍보의 수단으로 쓰는 게 좋겠다 그런 뜻으로 아마 말씀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저희 방으로 정확한 방향과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념해서 그 문제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리고 도지사님,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한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런데 국민적인 성원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국민적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올림픽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그것보다, 지금 너무 국민적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李恩宰 위원 지난번 88올림픽 하고 30년 만에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제가 19대 국회 때 평창동계특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봤더니 2년 동안에 딱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이것은 국민적 관심이 그것만큼 없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은재 위원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리우올림픽이 끝나면 평창올림픽의 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恩宰 위원 이상입니다.

평창위원회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위원장 황영철 이은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대 국회 때 동계특위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요. 회의는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특위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특위는 이은재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특위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지역구의 이철규입니다.

김종덕 장관님, 최문순 지사님, 이희범 위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올림픽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고 또 당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도지사님!

얼마 전에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경기장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철규 위원 아마 그것은 설계하시는 분들이 평창지역이라든가 정선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설계를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예를 들면 강릉의 경우에 아이스하키 경기장의 설계가, 겨울 되면 눈이 많이 오는데 처마 끝으로 눈들이 몰릴 때 하중이 몰릴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고려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파손 우려가 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감사원으로부터 나왔던데,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히 설계 당시에 고려가 됐다면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혹여

개막식 전이라든가 또는 대회 중에 이런 붕괴라든가 안전사고로 대회에 먹칠을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한 안전 관련된 예산도 좀 더, 큰돈이 아니니까 배정을 해 가지고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철규 위원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IS에 의한 테러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마 위원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경기장 시설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지만 테러가 지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올림픽이라고 하는 전 인류의 문화행사는 테러를 자행하는 단체로서는 아주 좋은 타깃이 될 수 있고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지금 준비되고 있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게 행사 때마다, 올림픽이라든가 그 외에 정치적인 행사도 있습니다만, 보니까 안전에 동원되는 기관 간의 하모니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만큼은 위원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안전문제, 테러라든가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작금의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또 한미동맹으로 인해 가지고 동맹이 강화되면서 IS 쪽에서, 얼마 전에 확인된 것은—정확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우리 국내에 있는 미군 관련 시설도 공격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올림픽이 결코 안전하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조직위 차원의 준비가 지금부터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조직위 차원에서는 경찰, 소방 등이 파견인력으로 구성된 안전관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그 대비를 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합동안전대책본부가 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위하고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대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렇습니다. 조직이 있지만 이 조직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고 또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업무에 동원되는,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 자리에 나오신 장관님, 지사님 또 위원장님과 차관께서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이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昞 위원 부산 진구을 출신 새누리당 이헌승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데요. 정말 어렵게 세 번의 도전 끝에 저희들이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창올림픽지원특위도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특위의 목적은 평창올림픽 개최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직위원장님께서는 5월 달에 취임을 하셨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李憲昞 위원 그전의 4월 달 감사원 결과를 보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네요.

알고 계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李憲昞 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과소계상을 하고 신규 사업도 미반영하고, 그래서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그런 것을 지적을 당했는데, 만약에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충을 해야 되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2011년도 조직위 설립 당시에 기재부에서 대회 운영 관련 적자를 보전하겠다는 보증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될 평창동계올림픽이 적자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 같은데, 혹시 대회 재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을 다 감안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 지적을 포함해서 4차 재정계획안을 만들었고 그 안을 가지고 지금 정부, 문체부하고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도지사님, 현재 도에서 문광부와 같이 경기장 건립 신규로 하는 것도 있고 보완해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 연결도로, 간선도로망 이런 것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수 있나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지금까지로는 내년 연말까지 거의 다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경기장은 내년 12월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도 몇 개 나와 있는데, 보통 올림픽 하기 전에 프레올림픽이라고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시설 점검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레올림픽 전까지 다 완성할 수 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내년 11월까지는 거의 모든 경기장이 100% 완공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혹시라도 차질이 올까 봐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정말 지장이 없도록 건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고맙습니다.

○李憲昇 위원 경기장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시일에 급급한 나머지 안전을 등한시하고 경기장 건설을 한다면 안전사고가 나는데, 보니까 지난 24일에 강릉에서 인부가 추락해 가지고 부상을 입고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는데,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지난번 안전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또 문제는 저희들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더라도 우리 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건설한 경기장들이라든지 시설물 활용하는 것이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월드컵경기장을 열몇 개를 지었는데 그중에서 흑자 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나중에 사후관리를 도라든지 도에서 출자하는 공단 같은 데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자료를 보면 흑자를 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적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위원님, 우선 저희들은 경기장을 짓는 숫자가 6개밖에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필수 시설이고 나머지는 국가대표선수들의 훈련시설로 되어 있어서 흑자를 내기는 어렵지만 국가나 우리 도가 반드시 운영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문체부와 조직위와 상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李憲昇 위원 정부하고 강원도는 지금부터라도 수익을 창출해 내고 있는 경기장들을 잘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李憲昇 위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감사합니다.

이헌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길 위원 서울 송파을의 최명길 위원입니다.

먼저 최문순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언론인 시절의 경력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 걸어오셨던 길을 볼 때 지금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평가를 하면서도 불편한 것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최명길 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각종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이유로 이런 임금체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우선 공사가 처음 설계 당시보다 난공사여서 공사비용과 시간, 인력이 더 투입이 되다 보니까 공백이 발생을 했습니다. 각각 서로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를 저희가 직접 중재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길 위원 양보 대상자라는 게 말이지요, 실제 현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장비를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내 가면서 자기 노동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임금이 몇 개월만 체불되면 본인이 굉장히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고, 이런 현실은 알고 계시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길 위원 그렇다면, 얼마 전에도 저희 의원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주에도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복선철도 공사현장에서 12억 원 임금체불 문제가 또 발생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원청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압력도 넣고 때로는 고소·고발도 해 가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명길 위원 그러면 이 구조 잘 아시겠지만 원청자가 발주를 하면 하청, 재하청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3단계 하청을 받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데에서—그 제도의 이름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대금e바로 시스템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서 몇 단계를 거치더라도 장비 임대료라든지 현지에서 노동자임금 같은 것은 원청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 볼 용의가 있으세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도 그 제도를 도입을 일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도가 완전치가 않아서. 그러나 하여튼 그게 상당히 보완 수단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지난 1월 달에 IOC 기자회견장에 임금체불, 못 받았다고 하는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아주, 외신에도 나고 IOC 조사가 있을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지사께서 좀 적극적으로 각종 현장에, 실제 지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임금체불 현장이 어디 있는지를 좀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했으면 한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그리고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88올림픽이 30년 됐는데 그때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그게 국제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부여를 받았습니다. 동서 냉전의 벽이 무너지는 어떤 계기가 됐다, 그렇다면 30년 만에 우리 땅에서 동계올림픽이 벌어지게 되고 개최되게 되는데,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대되는 일인데, 이것을 계기로 남북한 문제라든지 동북아시아 평화 이런 데 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북한의 참여라든지 동북아시아 평화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통일부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경기장, 과거에는 북한에서 일부 경기 치르는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논의가 됐었지만 그것은 IOC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진행되지를 못했습니다만 선수들은 최소한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계속 저희가 촉구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길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조직위원회에서 성화 봉송로와 관련해서 IOC랑 협상 내지 하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제부위원장 소관입니까?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성화 봉송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명길 위원 그것을 IOC랑 협의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서 한다는 겁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IOC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 주관으로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IOC하고 협의를 합니다.

○최명길 위원 봉송로 노선에 북한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안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나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을, 되겠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길 위원 그게 가지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라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최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 안녕하세요. 김규환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행사가 여러 군데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평창 그러면 제가 태어난 곳이고 우리 조상 대대로 거기 살았던 곳이고 그곳에서 평창올림픽이 열린다는 데 가슴 벅차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박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고맙습니다.

○김규환 위원 힘들지 않으세요? 가장 힘든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사실은 물리적으로 지금 저희 주 사무소를 평창으로 옮겼습니다. 한 달 전에 옮겼는데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서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김규환 위원 그러면 계속 평창에 계세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위원회에서 정말 돕고 싶어서 저 이 자리 신청했습니다. 일자리특위에서 내가 떼를 써 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감사합니다.

○김규환 위원 그런데 올림픽을 하면 우리 평창이 좋은 점이 뭐예요? 그거 한 가지만 얘기 좀 해 주세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우선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요. 동계올림픽은 1924년 이후에 우리가 스물세 번째 개최하는데 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로 우리가 네 번째 나라가 됩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다음으로 네 번째 개최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김규환 위원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 하면 그런 나라의 어떤 위상이 좋아진다는 것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경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지요.

○김규환 위원 그러면 일단 안전사고 같은 것은 안 나야 되겠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김규환 위원 가는 길도 좋지만 배후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배후도로가……

저는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의원 그러면 두 분 딱 꼽을 수 있는데요, 우리 황영철 위원장님 그다음에 염동열 위원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장만 1200명 가까이 됩니다. 동네가 넓어 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다 보면 4년 동안 일은 못 하고 선거운동만 하고 다녀야 됩니다. 다 못 만납니다.

그런데도 뭘 걱정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창조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를 하셨어요. 배후도로 같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지금 228억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인데 물론 이거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후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나중에 다 위원장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협의를 또 하겠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지만 안흥에서 문재를 넘어가는 길에 보면 겨울에 눈 오는 길의, 내리막길 한번 꼭 가보십시오. 거기 내리막길이 경사도가 45도 가까이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 배후도로, 문화거리 뭐 이런 데 찾아다니다 보면 외국인들 와서 거기로 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미끄럼 타기 시작하면 안전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것들 왜 진작 진작에 체크를 안 하는지, 내가 담당자라면 저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도로 밑에 터널 같은 것 바로 뚫었어야 하는데 산 중턱에다 도로 터널을 뚫어 놓으면 과연 그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외국인들 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위원장님이 철저하게 체크 좀 하시고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써서 서면질의하고 다시 또 저희 방에 모시고 그다음에 황영철 위원장님하고 염동열 위원님하고 제가 또 같이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이거 하는데 정말로 진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 한마디만 하십시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지금 하십시오.

여기 야당 위원님들 계시는데 도와줄 것 아닙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이거 하나만 꼭 좀 도와주십시오.

○김규환 위원 어떤 것인지 얘기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간선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동계올림픽의 속성상 산간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흥지역의 45도 경사도로 말고도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많이 촉박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환 위원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지사님하고 장관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애국지사이고 독립군이 모인 단체입니다. 여기가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위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오늘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파이팅!」 하는 이 있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하여튼 잘못된 건 철저하게 잘못됐다고 얘기할 것이고요, 질의 무섭게 할 것입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요. 정말 격려 많이 할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의지는 좋으신데 다음부터는 회의시간에 박수 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웃음소리)

○김규환 위원 우리끼리니까, 잘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위원장 황영철 예, 양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 안 하셨지요?

○민홍철 위원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민홍철 위원님 질의 순서 드리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경남 김해시갑 출신 민홍철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4대 국제 올림픽 행사의 완결판이 될 진짜 의미 있는 행사인데요. 88올림픽 그다음에 월드컵 그다음에 국제육상경기대회도 했지요. 그 이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아름다운 평창 강원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조직위원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고서에도 보니까 국내외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를 해서 올림픽 붐을 이루고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각 매체라든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보면 과연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언제 하는지 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간헐적으로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붐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 1년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온 국민이 동참할 수 있

는 그런 어떤 대책이, 물론 나름대로 세우고 계시다고 하는데 좀 더 그런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우선 지난주에 평창에서 올림픽 마스코트 출정식을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리우 올림픽 기간 중간에 리우에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홍보를 합니다. 돌아오면 9월 하순에는 D-500일이 됩니다. 500일 행사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요소의 고속도로라든가 역사라든가 극장이라든가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올림픽 홍보 마스코트를 세우고 홍보 패널을 세우고 등등 홍보를 합니다.

○민홍철 위원 아마 좀 더 활성적으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요즘에 국제적으로 다중경기장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안전의 문제 또 특히 테러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창 경기장을 치르면서 그런 안전대책이나 공사 중에도 안전대책이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경기 중에 어떤 안전의 문제 이것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안에 관련 부처 경찰청하고 소방관서 또 등등이 구성된 안전관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합동안전대책본부가 구성돼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테러 문제 그다음에 시설 안전 문제, 지난주의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안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침을 전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세계 동북아 평화가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가장 저희가 관심 있는 게 과연 동계올림픽에 북한 팀이 참석을 할 것이냐 그 문제도 아마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아까 말씀하실 때 통일부하고도 협조를 하고 계신다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전망이 어떻습니까? 응원단이라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 생각에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경제올림픽이자 환경올림픽·통일올림픽·문화올림픽이 되게끔, 그중에 중요한 게 통일올림픽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북한에서도 어떻게든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정도의 랭킹에 오르지 않으면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걸림돌은 되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아까 강원도지사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치르고 난 다음에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또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요. 그래서 그 관리 차원에서 아마 강원도에서 독자적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는 아마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시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활용하고 또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투자 대 효과 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국민들이 경기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워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이것을 운용하는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이기는 한데 지적하신 여러 가지, 지자체가 그것을 다 떠안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힘들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민간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일부는 국가에서 대표선수들의 훈련장으로다가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사후 활용이 되게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이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국민들한테 세금을 잡아먹는 어떤 몬스터가 되지 않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간사님들 질의를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의 이동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세 분 모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과 민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한 체육축제가 아니고 요즘에 사드 문제 때문에 경색된 남북 관계 또 대중국 관계를 어떻게 스포츠외교를 통해서 해결하고 어프로치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중일이 다 함께 4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올림픽이 한꺼번에 열려집니다. 그래서 한중일 체육장관회의가 곧 있을 예정이고요. 곧 조직위원장께서 리우에 가시게 되는데 한중일 조직위원장의 협의체가 리우에서 제안이 돼서 아마 그 제안안에 여러 가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86년 아시안게임 때 우리가 몇 위 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86년 아시안게임 때……

○이동섭 위원 2위입니다, 2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2위지요.

○이동섭 위원 올림픽 몇 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4위 했습니다, 런던에서.

○이동섭 위원 그다음에 2002년 월드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월드컵 4위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동섭 위원 이번에 몇 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리우요?

○이동섭 위원 아닙니다, 우리 평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평창이요?

○이동섭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평창 4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4위 안으로 꼭 달성하는 걸 두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등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선진국들이 보통 보면 1·2·3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격이기 때문에 꼭 4등 안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IOC 위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지금 두 분, 선수위원 한 사람이랑……

○이동섭 위원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런데 활동을 못 하고 계시지요.

○이동섭 위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선수위원도 그제부로 끝났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건희 회장 누워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이동섭 위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스포츠 관계에 있어서 IOC 내의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 대책을 가지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동섭 위원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이희범 위원장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이동섭 위원 현재 예산이 6000억 부족하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저희 4차 재정계획상은 그렇게……

○이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참여한 기업들을 보니까 SK, LG, 현대 해 가지고 6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다른 업체가 왜 참여 안 하는가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IOC에서 지정하는 맥도널드 같은 경우는 어떤 부가세나 이런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업들한테 세금 감면 안 해 주고 있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셔서 이게 관철돼야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이동섭 위원 공공기업도 보니까, 참여 안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그게 돈을 투자하게 되면 기관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는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이지 헌신하면 그걸 갖다가 가산점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지 불이익 처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해서 이게 모든 기업들이 참여하고 우리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꼭 흑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다음에 이희범 위원장님, 철도수송 문제인데요. 하루 동안 2만 명이 철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2만 명이지 엄청난 숫자인데 이게 할 수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지금 철도수송이, 사실은 고속철이 그때 완료가 됩니다마는 하루에 4만 명 운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지금 현재 투입 열차를……

○이동섭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대안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안전성 문제 때문에 8t 고소작업차가 무너져 가지고 희생당한 사람들 있지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이동섭 위원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번에는 절대 안전사고 없도록,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평창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좀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다음에 문화올림픽 강조하셨는데 어떤 문화올림픽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은 우리나라 전국이다, 17개 시도가 전부 참가하고 우리나라 대표 문화예술단체들이 다 동참하는 그런 문화올림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좋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8올림픽 기억하시고 그런 문화의 축제,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축제 그다음에 국가가 융성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장관님 또 차관님, 위원장님, 도지사님 함께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철 이동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원주을의 송기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위원장님, 지사님, 동계올림픽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이나 최명길 위원님 그리고 이동섭 간사님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요.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국 체육 관련 장관께서 회의도 하시고 회담도 하시고 또 위원장께서도 만나신다고 하시니까 기대가 많습니다.

88올림픽이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그

런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처럼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에 평화를 남길 수 있는 올림픽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 3개국 장관을 같이 만나셨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3개국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또 체육 관련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협력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또 존경하는 송기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 그것에 대한 논의도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강원도가 남북 강원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 유치하면서 그 부분에다 굉장히 큰 의미를 뒀었습니다.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또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바는 가칭 동북아 올림픽 평화로드 이런 것처럼 뭘 만드셔 가지고 장기적으로 북한까지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좀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송기헌 위원 또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올림픽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위원장님도 그렇고 또 장관님께 제가 부탁을 드린 건데 문화올림픽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전국적으로 고취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올림픽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동계올림픽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관님,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강원도에서 추가로 건의하고 있는 문화올림픽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이것이 바로 아까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전국적인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또 하나는 문화올림픽을 지사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올림픽이라는 것이 기존에 올림픽 할 때까지에 관련된 그런 문화행사만 지금 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올림픽 이후에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행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남길 수 있는 문화행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금 강원도 같으면 18개 시군이 모두 동참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으로는 17개 시도가 모두 동참하는 문화행사를 만들고 그것이 각각 돌아가서 그 후에도 계속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구상을 갖고는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지사님께서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올림픽 이후에 그쪽이, 평창이나 태백·강릉·정선 이쪽이 사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한 문화적인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존경하는 송기헌 간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꼭 한번 빨리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장관님께서도 예산을 앞뒤로 다, 이 동계올림픽이 성공하는 데는 문화가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이미 개폐회식장 같은 경우에는 개폐회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공연이 계속 벌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미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예, 하여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행사기간 중에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응급조치나 이런 것

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소방본부 쪽에서 걱정을 좀 들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형응급차 같은 경우에 지원이 잘 안 돼서 걱정이다, 이게 우리 동양인보다는 체격이 큰 북부유럽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체격이 크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와서 사고를 당했을 때 응급조치를 하는 차량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응급차 가지고는 그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아마 대형응급차가 그렇고 여러 가지 특수구난시설, 구난차량 그런 것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꼭 한번 이것 챙겨 봐 가지고 한번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테스트이벤트를 통해서 그런 응급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강원도지역이 그 당시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응급차 운영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 당시에도 헬기가 두 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대가 응급헬기로다가 사용되고 또 한 대는 군헬기가 비상시를 대비해 갖고 두 대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될 경우에 헬기로 다 곧바로 후송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는 철저히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세 분 앞으로 더욱더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철 송기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간사님이신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김종덕 장관님 또 최문순 지사는 여러 번 동계특위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희범 위원장님은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대정부질문 또 상임위 또 동계특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원론적이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이희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절호의 기회고 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과잉 투자, 분산 개최 그리고 조직위, 강원도 또 문체부 또 지자체 간의 부조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 떨어졌고 또 여러 가지 기재부의 예산 지원의 난색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왔고요.

그러면서 조직위원장이 몇 번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희범 위원장님이 오시면서 제가 기대를 갖는 것은 그동안 이 조직위·강원도·문체부의 부조합이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 소통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현장에서 각론마다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고 또 지난번 제 방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문화관광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희범 위원장님의 견해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선 당장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재부나 재무당국에서 또 정부에서 재원 조달에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서 얘기했던 말씀 중에서 이 올림픽은 88올림픽 이후에 우리 국가의 최대 이벤트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술상품을 팔 수 있는 그래서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화관광을 철저히 저희들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 올림픽을 통해서 관광대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오늘도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ICT 부분에서도 우리 기술상품을 세계 속에 그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 그리고 경제, 평화 그리고 환경올림픽에 대한 액션플랜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

직까지도 사실 저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올림픽 로드 동북아·한국·중국·일본에 대한 것은 실제로 장관님이 중국을 다녀오시고 또 최문순 지사님도 지자체 간에 광역도시 간에 역할이 주어지고 있고 또 조직위원장님도 실질적으로 한중일 만나기로 지금 되어 있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염동열 위원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국가의 브랜드 가치는 높습니다마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가치, 관광의 가치를 우리가 국토 이용 균형발전 차원에서 또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분산,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나 개최도시가 세계 속에 등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조직위원장님이 함께 공감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다 하는 차원이 지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직위원장님이 고민하고 계시고 우리 장관님도 고민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기재부의 예산 지원이 굉장히 난색을 갖거나 실제로 거기에 지금 아주 벽처럼 블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예,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부분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많이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도가 많이 높여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동열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몇 가지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플랜 자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나 관계 재정당국에도 설득할 필요가 있다, 통합적으로 실제로 한 바구니에 담아서 이것을 저는 정무적이든 또 장관과 장관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 올림픽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 방에 온 것만 해도 지금 열댓 개 정도의 각 강원도, 평창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선 그리고 조직위에서 온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정부에도 제안을 하고 정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것이 국민들한테 계속 부담으로 남아서 그야말로 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비난이 있게 되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굉장히 좋은 축제인데 그것에 손상이 가지 않게끔 돈은 최대한 아껴 가면서도 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돈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축제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혹시 또 추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염동열 위원 제가……

○위원장 황영철 염동열 위원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하도 오래간만에 이 동계특위를 해서 할 말이 좀 많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 문제 또 실패 올림픽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제가 분석한 걸로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올림픽에서 11조 430억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5245억이에요. 그런데 여수박람회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 정책을 보게 되면 특히 광주에 아시아 중심 문화도시도 거의 3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데 저는 정부가 너무 인색하다, 지금까지 죽 제가 설명을 드렸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이미지를 재도약시켜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실질적으로 너무 인색하다는 겁니다. 이미 열을

투자했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하나 둘 더 투자하게 되면 완성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금 아끼고 있다는 거지요. 한두 개를 아껴서 전체를 실패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장관님이나 조직위원장님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244억 원 권성동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희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6000억 이것도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 특위 위원님들 좀 설득하시고 또 논리를 만드셔서 이것도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조직위나 강원도나 평창군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을 강원도지사님,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강원도지사 최문순 역시 홍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아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듯이 평창올림픽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낮고 또 바람이 일지 않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조직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선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 있으시지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장 이희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시설이나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리우가 끝나면 세계의 이목이 평창으로 몰리게 됩니다. 앞으로는 금년 11월부터 바로 테스트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또 존경하는 염동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평창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주변 뒷골목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작업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염동열 위원 지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올림픽 추가 지원 이것 필요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희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변 미관 조성사업 이것 아마 창조올림픽 거리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 계획으로 다시 추경에 지금 아마 문체부에 제출될 건데 이것 장관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직위에서 제 방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공공기관 참여 및 지원 확대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도시 숙박시설 환경 및 식음료 서비스 개선 이 부분도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것도 한번 장관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음식점 서비스 글로벌화 이것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올림픽 역사(驛舍)에 지금 진부하고 재산하고 역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올림픽 지원시설 다시 말해 VIP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특별시설의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짚어 봐 주시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동계특위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김종덕 장관님, 정말 전체 컨트롤타워는 장관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각 평창이나 정선이나 강릉이나 강원도나 조직위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저는 유일호 총리님이나 어쨌든 이렇게 큰 틀에서의 합의 내지는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각별하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논리 똑같은 논리로 제가 기재부 부총리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개 쓰시고 1개 안 쓰셔 갖고 나중에 욕먹지 말고 잘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가지고 메뉴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러한 노력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는 데는 역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개선을 하셔야 되고 그분들이 그야말로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그것을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저희가 하여튼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도 이런 올림픽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 잘 유념해서 제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다 마치셨지요?

○염동열 위원 예.

○위원장 황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오늘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과 조직위와 강원도의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에서는 예산 2차 심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예산심사가 내년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의 마무리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그러면 지금쯤이면 어떤 예산이 확정되고 어떤 예산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답변을 들어 보면 조직위나 또 장관님이나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년도 예산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사실 반영이 지금 안 됐습니다. 저희가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수용을 안 하는 바람에요. 그래서 특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황영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오늘 답변 속에서는 절박함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우리 특위는 지원특위 아닙니까? 지원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답변도 그렇게 하고 요구할 것이 있으면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야 저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이 안 나와서 그냥 저희들한테 약간 흐릿하고 불투명하고 이래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 함께 모아서 예산심사 마무리 과정에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 특위 차원에서 의견을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께서 각별하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테러안전대책본부와 관련된 활동이 아직은 본격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준비되어야 될 예산이 있는 겁니다. 인원이 있고 기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장 대회기간 중에 운영되어야 될 구급차 문제도 명확하게 안 되고 있어요. 강원도가 요구하고 있는 것만큼도 지금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누가 챙기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저희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최대한 총리실과 기재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저희가 여야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18일, 19일 양일간 현지에서 현지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8월 18일까지 정부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답을 듣고 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서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그리고 그전에라도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정부 예산 당국에 그런 의견을 올릴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주시면 특위 차원에서 건의문이라든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올림픽과 관련되어서도 많은 문화올림픽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화올림픽을 조직위 차원에서 해야 될 행사, 강원도가 해야 될 행사 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행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준비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문화올림픽과 관련된 행사프로그램이 사실상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스크린이 제대로 리스트 업이 되고 있는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3개 기관의 확실한 논의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문화행사하고 문화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문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하고 함께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 때만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일부 돈을 대 갖고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이 유지되는 게 사실 관건이라서 정

부는 그 행사들에 대해서 시드머니를 대고 민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끔 저희도 계속 그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현지 회의할 때 문화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좀 더 깊이 있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다 같이 또 한마음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특위로서의 초점에 잘 맞추셔서 질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바쁜 시간을 내서 오늘 회의를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또 강원도지사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회의 준비에 애써 주신 전문위원실 그리고 속기사 여러분들,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질의가 세 분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박완주 위원님, 김규환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세 분의 서면질의가 들어와 있어서 서면질의에는 성실하게 빠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8월 18일, 19일 1박 2일로 현지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정 각별히 조정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권성동	김규환	김기선	민홍철
박완주	송기헌	염동열	이동섭
이은재	이찬열	이철규	이헌승
최명길	황영철		

○청가 위원(1인)

고용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제2차관	김종
체육정책실장	김재원
체육협력관	김영수

강원도

도지사	최문순
동계올림픽본부장	노재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및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이희범
사무총장	여형구
국제부위원장	김재열
기획사무차장	김기홍
운영사무차장	백성일
대회시설사무차장	김상표
기획총무국장	김현기
재정국장	지규택
마케팅국장	엄찬왕
시설국장	손창환